

민주주의와 갈등의 합리적 조정

칼럼



장을병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원장

생각을 달리하는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는 인간사회에서는 의견의 대립이 빚어지고, 그것이 심할 때는 사회적 갈등을 빚어 내게 마련이다. 따라서 인간사회에서 의견의 대립을 타할 수는 없고, 일정한 사회적 갈등은 수용할 수밖에 없다. 의견의 대립과 그것으로 인한 갈등은 인간사회의 원래 모습으로 받아들

일 수밖에 없을지 모르겠다. 그러나 어떤 사회가 유지·발전해 나가기 위해서는 의견의 대립이나 사회적 갈등은 조정되어야 한다.

의견의 대립과 사회적 갈등을 어떻게 조정하고 해소하느냐에 따라 그 사회는 두 가지로 갈라진다. 지배계층의 의견만이 제시될 수 있고, 피지배계층의 의견은 아예 제시될 수 없도록 억압함으로써 의견의 대립이나 사회적 갈등이 없는 것처럼 위장하는 사회는 독재사회이고, 지배계층의 의견만이 아니라 피지배계층의 의견도 함께 제시될 수 있도록 개방함으로써 빚어진 의견의 대립이나 사회적 갈등을 대화를 통해 합리적으로 조정해 나가는 사회는 민주사회이다. 독재사회보다는 민주사회가 인간의 삶이 안락하고 보람이 있음은 두말할 나위 없다.

그러나 피지배계층의 반대 의견 제시를 힘으로 억압함으로써 의견 대립이나 사회적 갈등이 없는 것처럼 위장하는 일은 손쉬울는지 모르지만, 피지배계층의 반대 의견 제시를 허용해서 빚어지는 의견 대립이나 사회적 갈등을 해소해 나가는 일은 훨씬 어려울 수도 있다. 인간들의 삶이 안락하고 보람 있게 만드는 민주사회를 구현하는 일이 힘으로 반대 의견의 제시를 억압해서 의견의 대립이나 사회적 갈등이 없는 것처럼 위장하는 독재사회를 유지해 나가는 일보다는 훨씬 힘들고 어렵다는 것이다. 민주주의를 구현하는 일이 독재를 유지하는 것보다 훨씬 힘들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민주주의를 구현하는 일에 목숨을 걸기조차 하는 것은 그만큼 값어치와 보람이 있기 때문이다.

민주주의사회라고 해서 의견의 대립이나 사회적 갈등이 자동으로 해소될 수 있는 것은 결코 아니다. 민주사회라고 해도 성원들 사이에서 빚어진 의견의 대립이나 사회적 갈등을 조정·해소하려면 그 성원들 사이에 부단한 노력이 필요하다.

첫째는 나의 의견만이 옳은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의견에도 옳은 점이 있음을 인정해야 한다. 나의 의견만이 옳고 상대방의 의견은 무조건 그르다는 독선적인 사고에 젖어 있을 때, 의견의 합의점을 찾을 수 없고 갈등은 해소될 길이 없다. 상대방의 의견에도 옳은 점이 있다는 상대적인 가치관을 지닐 때에만 합의점을 찾을 수 있고 갈등은 해소될 수 있다.

둘째는 나의 이익도 중요하지만 함께 몸담아 살아가고 있는 공동체의 이익도 중요함을 인식해야 한다. 자기 스스로의 이익만을 고려하고 공동체의 이익은 깎아뭇개 버리는 이기적인 사고방식에서는 양보란 있을 수 없고 평행선으로 달리게 마련이다. 서로 간 양보 없이 평행선으로만 내달을 때, 대립은 격화되고 갈등은 증폭될 수밖에 없다. 공동체 속에서 더불어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공존의 윤리를 터득해 내는 일이 의견의 대립을 완화하고 갈등을 해소하는데 무엇보다 중요하다.

셋째는 제아무리 대립을 빚고 있는 이해당사자들이라고 해도 더불어 살아가기 위해 머리를 맞대고 진지하게 대화를 나누면 합의점에 도달할 수 있다는 신념을 지녀야 한다. 인간은 애초부터 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규정지어진 것이 아니라 더불어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회성을 지니고 태어났으므로 인내심을 갖고 진지하게 대화를 이어가면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고 합의점에 도달할 수 있음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세 가지 점들에 유의해서 진지하게 대화를 이어가면 변증법의 원리에 따라 의견의 대립이나 사회적 갈등은 조절될 수 있다. 인류의 역사는 보다 나은 방향으로 발전해 왔다는 믿음을 간직할 필요가 있다.